

##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김정숙\*

제주도는 바람 많고 돌 많은 화산섬이다. 제주의 신화들은 이런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제주사회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드러내는 맥락이자 문화 산물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제주의 조건을 반영하면서 맥락적으로 형성된,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보고 다문화, 다문화교육의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글이다. 밭농사를 하게 한 척박한 ‘뜨땅’, 죽음과도 같은 바다를 헤치며 살아가야 했던 빈약한 생산성, 분산된 소유와 평등하고 개체적인 삶을 만들어 준 조각 조각난 토지들은 제주만의 고유성을 만들어냈다. 빈약한 생산성은 자립과 경쟁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경쟁과 다양성, 개체적인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내 밭을 살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제주의 문화, 제주신화가 보여주는 중요한 테마이다. 협력, 공존, 차이에 대한 인정, 비차별, 소통, 공감, 공정, 나눔, 배려, 관용, 연대, 절약, 정의, 비판, 저항, 자율, 위로, 치유 등과 같은 다문화 요소들을 제주신화는 끊임없이 보여준다. 제주신화는 그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달라지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관계와 담론을 재구성해낸다.

주제어: 제주신화의 고유성, 다문화 요소, 개체의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차이’에 대한 인정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신화연구가

© 접수일(2016년 4월 24일), 수정일(2016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23일)

## I. 서론

다문화교육은 국가를 망라하여(cross-nationally) 쟁점, 개념, 패러다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학문이며 연구 분야이다. 다문화교육에는 각 사회의 맥락을 초월하여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평등과 정의 등의 이상을 지향하는 보편적 특성이 존재한다(Banks & Banks, 2004; 양영자, 2015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평등과 정의 등의 이상’은 제주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행간의 의미와 가치 찾기를 계속하고 있는 필자에게, 제주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 요소를 세밀하게 찾아보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제주신화를 매개로 다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지역의 사회적 맥락에 맞는 다문화 요소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성해내고 섬세하게 실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개성의 현현과 지역 정체성의 확립에도 제주신화는 재료로서도, 내용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자신의 지역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지역과 문화의 이해, 타자에 대한 존중, 세계시민성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문화적 요구와 필요에도 제주신화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제주지역의 창의적 다문화 요소들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 세계 각 지역의 다문화 현실과 그 연구 및 실천에도 반향과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필요성과 함께 이 글에서는 제주신화에 사회맥락적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제주의 고유한 지역성을 살피고, 그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요소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실제적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아날학파의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역사를 정치적 사건 같은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역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경기변동과 같은 중기지속의 역사, 그리고 장기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기후나 지리 등의 자연적 조건과 그것에 의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이나 의식구조 같은 장기 지속의 역사로 구분한다.

그는 사회나 문화의 연구들이 ‘장기 지속 기간’보다 ‘단기 지속 기간’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단기지속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논쟁 등은 전면적으로 부각되지만 그런 경향들 혹은 그 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일상의 구조와 같은, 그 근본에 있어 거의 불변하는 장기지속의 흐름과 경향이라고 한다(김응중, 1997).

인간 삶의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정신적, 물질적 표현인 문화의 중요한 한 영역인 신화는, 브로델이 말한 '장기 지속의 역사', 즉 거의 변하지 않는 기후나 지리 등 자연적 조건과 그것에 의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 의식구조이며 이로써 제주사회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무속신화, '본풀이'는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이다. '본'은 뿌리, 근본, 원리란 뜻이고,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신의 뿌리, 곳의 원리를 뜻하는 '본'이고, '풀이'는 해석하다, 설명하다, 진술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 좌정에 이르기까지의 신의 내력담이 되는 신화이다. 제주도 무속신화인 본풀이 속에는 제주인의 상상력과 문화, 제주사회의 내재적인 규율과 법칙,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화를 향유하는 신만민 집단의 미의식이 발현되고 있다(문무병, 1998).

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인문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열두 신의 본풀이인 일반본풀이, 마을의 당신(수호신)의 내력담인 당본풀이,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조상본풀이의 셋으로 나뉘지는데(현용준, 1996), 이 글은 일반본풀이와 당본풀이 전반을 대상으로 제주신화의 지역성을 살피고, 그 안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를 추출하려 한다. 한 집안 또는 씨족의 수호신에 관한 조상본풀이에도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집안의 조상의 내력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본풀이'나 '제주 무속신화'라는 용어는 이 글에서는 '제주신화'로 일괄적으로 통칭해서 사용한다. 삼성신화와 설문대신화를 제외하고, 제주신화는 이른바 '본풀이'라 불리는 무속신화이기 때문이다. 삼성신화나 설문대신화도 당신화(당본풀이)와 연관성을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제주 무속신화, 본풀이를 제주신화로 통칭해 사용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문화'에 관해서는 한국 다문화교육 연구가 개념 혼란과 혼동의 초기 단계에 있다(양영자, 2008)는 전제하에, 필자가 사용하는 '다문화', '다문화적'이라는 용어는 인종, 민족, 지역의 차별을 지양하고 인종, 민족, 지역적 등 다양한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점을 밝혀둔다<sup>1)</sup>.

구송되어오던 본풀이를 채록한 자료나 책, 원래의 내용을 해치지 않고 읽기 쉽게 현대어로 바꾼 책, 기타 제주신화들에 관한 발간서, 신문 자료 등에 두루 수록된 제주신화들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제주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책과 논문 등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의미, '다문화 요소'도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는 의미, 그리고 '다문화교육' 또한 '다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도 이 논문의 기본적인 자료로 선택되었다. 제주 무속신앙과 본풀이의 이해를 위한 제주 지역의 마을답사와 마을주민과의 인터뷰도 병행했다<sup>2)</sup>.

로렌스 그로스버그는 문화연구는 지적 실천을 맥락화하고 정치화하는 특정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맥락, 지식, 그리고 권력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규정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것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문화연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였다(Lawrence Grossberg, 1997). 이 글은 문화지리학적 접근의 문화연구다.

밭농사를 하게 한 척박한 ‘뜨땅’(화산회토),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야 했던 빈약한 생산성, 분산된 소유와 평등하고 개체적인 삶을 만들어 준 조각 조각난 토지들. 그런 상황 아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협업을 꼭 요구했던 농사일들이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개체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회체계와 삶의 자세를 만들어냈다.

이런 환경 아래 구성된 제주신화들은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무뚝뚝하다는 제주여성들의 특성에서부터, 개체를 존중하고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협력하며 배려하는 제도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그로 인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균분상속제, 노인들의 독립적 생활과 부부중심의 소가족 형태는 현실 제주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신화의 테마와 화소로 곳곳에 존재한다.

안팎거리의 가옥구조, 겹부조나 신구간의 풍습, 애기구덕, 할망바당, 조낭정신, 갈옷 등 제주도의 문화와 여러 습속의 면면들도 읽어낼 수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치들, 인간 존중, 개체적으로 자유롭고 공동체적으로 조화로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추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평등과 정의의 덕목들도 곳곳에 보인다.

환해의 섬, 빈약한 생산성의 제주라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실한 대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사람들은 개화와 문명이란 개념 내에 자라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단선적인 논리를 극복하면서, 평등하면서도 자유롭고, 또 개체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성숙한 사회제도와 담론들을 만들어 냈다.

이에 필자는 제주신화의 고유한 지역성을 1) 마을공동체 중심의 신화, 2) 민중적, 일상적인 신화, 3) 비차별, 평등적 속성의 신화, 4) 비판적 실천의 신화, 5) 다신(多神)의 신

2) 신화 자료: 「제주도 무속 자료사전」(현용준, 2007), 「제주도 신화」(현용준, 1996),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1998), 「남국의 무속」(진성기, 1897), 「제주신화집1」(제주문화원 발행, 2010), <김정숙의 제주신화>(2012~2015. 제주의 소리 연재물); 지역 자료: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송성대, 1996), 「제주지리론」(송성대외, 2010), 제주도지, 제주지역 마을지 등; 답사: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당 답사를 2015년과 2016년 현재에 걸쳐 하루 6시간여의 분량으로 9회 진행했다. 약 100여 곳의 당 답사를 했다(2015년 이전의 당 답사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마을답사와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 2014, 2015년 송당, 고산, 신창, 조천, 함덕, 외흘, 서귀포 서흥리 등의 마을답사 7-8회, 지역주민과의 집단 대담 및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인터뷰는 주로 마을의 리 사무소에서 진행했다).

화, 6) 뱀신화의 성행의 여섯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어서 이런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들을 1) 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 2)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문화 감수성, 3) 비차별의 추구, 4) 구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5) 자율적 문화거버넌스의 다섯으로 나누고, 개체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협력, 차이에 대한 인정, 공존, 절약, 나눔과 배려, 비차별, 정의, 비판, 저항, 자율, 위로, 소통, 공감, 연대, 치유 등의 다문화 세부 요소들<sup>3)</sup>이 제주신화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다문화의 전반에, 다문화교육의 실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제주신화의 지역성

인류는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창조한다. 각각의 신화는 인류가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부터 획득한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도의 문화를 읽어내는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단초가 된다. 제주도의 신앙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주도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은 보다 직접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덕안, 1996).

세계의 많은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제주신화 역시도 신화의 보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주지역만의 고유한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 1. 마을공동체 중심의 신화

제주도의 신앙은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본향당'(마을당) 신앙이 중심을 이룬다. 이는 사당이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한반도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다.

3) 이 글은 '다문화교육에는 각 사회의 맥락을 초월하여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평등과 정의 등의 이상을 지향하는 보편적 특성이 존재한다.'(Banks & Banks, 2004; 양영자, 2015)는 기본 인식 하에서, 본 연구자가 제주신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개체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협력, 차이에 대한 인정, 공존, 절약, 나눔과 배려, 비차별, 정의, 비판, 저항, 자율, 위로, 소통, 공감, 연대, 치유 등을 제주신화에 내재된 요소로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논농사 중심의 생산형태는 대토지 소유가 고착화되면서,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대토지를 지키고 대규모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한 사람이 유일한 중심이 되어 혈족 내의 구성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다른 혈족과의 물꼬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이는 과거 민족, 종족, 부락 중심의 공동체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신 기득적인 유리한 위치를 보전하는 혈통선별체제, 즉 반상의 구별, 서자의 차별 등과 함께 가족, 가문, 혈족 등의 배타적인 일족신의 신앙인 사당을 성행하게 했다. 결국 유교의 형식주의 및 가족중심주의와 습합되거나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죽은 조상을 위해서는 제사중심의 숭배의식으로 고정화되고, 살아있는 조상을 위해서는 충과 효를 절대가치로 표방하는 규범주의로 체질화되어 가게 했던 것이다(김인회, 1987). ‘홍부와 놀부’, ‘바리데기’ 신화는 그런 지배질서의 이야기다.

돌무더기들이 많고 경작에 좋지 않은 밭을 제주에서는 ‘돌랭이’(아주 자그마한 밭이라는 뜻의 제주어. 지역에 따라 ‘졸랭이’라 부르기도 한다)라 부른다. 이 돌랭이들이 주를 이루는 제주의 밭농사는 한 마을 안에서의 경작지일지라도 용암반의 분포와 지대의 높낮이, 자갈의 혼합도, 물의 투수상태, 위치 등에 따라 진압시기, 제초시기 그리고 파종시기 및 황숙기가 달라진다(송성대, 1996).

제주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돌랭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일하다가 진압이나 제초, 수확 등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면, 마을공동체의 협력을 얻어 재빨리 농사일을 수놓어 처리해야 했다. 자식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가족들을 동원하는 일은 어려웠다.

개개인의 자립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협업과 배려는 필수였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나 말을 끌고 나가 풀이며 물을 먹여주고, 늙어서도 물질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얹은 바다를 내주는 마을공동체를, 어찌면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다.

이렇게 형성되어간 개인의 자립, 평등한 개체성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의 협력, 공동체의식의 요구는 신앙 면에서도 제주를 매우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을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분향당은 마을의 중심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제의에 참여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공간이 되어갔다. 성산을 신천리의 ‘현씨일월당’처럼 이름만으로 사당임이 확인한 당조차 자기 집안의 조상신적 관념을 잃어버리고(진성기, 1987) 집안만의 당에서 마을의 당으로 바뀌지기도 한다.

제주의 신화들을 보면 마을의 설촌, 마을의 변화, 공동체의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그리스신화와는 또 다른 점이다. 그리스신화의 중요한 이야기에 속하는 신들 간의 위계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신화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어떤 과정으로 마을에 들어오게 되었다든지(설촌), 농경을 위한 소를 잡아먹어 버려서 이혼하고 별거하여 다른 마을로 작정했다든지(마을의 분리와 확산), 오곡의 씨앗을 가져와 곁혼하게 되었다든지(정착생활), 마을에서 어떤 직능을 가진 신으로 대접받게 되는(생산형태의 구체화와 생활기능의 분화) 과정 등, 공동체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이 신화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송당의 자녀신계가 아들 18, 딸 28, 손자 378을 이루었고, 이 자손들이 퍼져나가면서 마을과 당을 형성했다는 제주의 송당신화는 그리스신화처럼 드라마틱한 문학적 매력을 주지 못하더라도, 사회맥락적인 신화로 살아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 2. 민중적, 일상적인 신화

제주신화는 어느 신화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과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주는 환해의 화산섬이다. 한라산은 바다에서부터 완만한 평원을 만들어 내면서 높이 솟아 있다. 생산형태는 이런 자연환경을 연속적으로 반영하여, 한라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면서 수렵목축, 농업, 어업의 생산형태를 차례대로, 복합적으로 분포하게 했다. 인구부양력이 낮은 발농사와 빈번한 자연재해,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부(富)에 대한 기본적인 추구는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에 맞는 수렵, 목축과 농업, 어업의 성행을 가져오게 했다.

생산형태는 자연환경을 연속적으로 반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당의 직능별, 공간적 분포 역시 이에 일치된다. 즉 산간에서 중산간 그리고 해안으로 내려오면서 산신, 농경신, 해신이 분포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산간·중산간마을은 자연환경을 반영하며 반농반수렵, 반농반목축의 생산형태에, 산신과 농경신의 직능을 가진 신들이 분포한다. 반면 제주도의 해안마을은 반농반어업의 생산형태에, 해신과 농경신이 분포한다.

문무병(1993)은 그가 직접 조사한 250개의 당신을 유형을 계통에 따라 분류하면, '산신계 61개 24%, 농경신계 120개 48%, 해신계 53개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계통 분류를 보이는 것은 제주도의 산간, 중산간마을은 산신과 농경신을 부부신으로 모시고 반농반수렵 또는 반농반목축의 생산형태를, 해안마을은 농경신과 해신, 산신을 부부신으로 함께 또는 따로 모시는 반농반어업의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신신앙은 해전(海田)경작지와 어장을 가진 해촌사회의 신앙으로 제주도 당신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라산의 산신들이 사냥을 하며 산을 내려와 마을의 당신

이 되듯이, 해신들은 한라산신과 혼인하고 심해의 용궁으로부터 물에 올라와 좌정한다. 당은 해안마을에는 반드시 자연마을 단위로 1개씩은 있으며 어로작업이 있을 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문무병, 1993).

당의 시작과 당의 분리, 신의 직능과 같은 신화의 구조들이 이처럼 마을의 생성과 분리, 생산형태, 생활문화환경과 밀접하게 나타나며 유지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제주신화의 일상과의 친밀함은 신들의 탄생과정에도 나타난다. 제주의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알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주로 땅에서 솟아난다. 여기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데 대한 제주인의 두려움이나, 물을 구하기 어려운 자연적 조건에서, 간절히 바라는 물을 제공해 주는 샘(용천)의 갈구함이 지생관(地生觀)을 탄생시켰다는 주장이 있다(이덕안, 1996).

이런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결국 하늘에서 강림하거나 알에서 태어남으로써 보편적으로 신화들이 가지는 무소불위의 힘이나 영웅성의 확보를 우선으로 했기보다는 친숙한 자연적 조건과 그에 따르는 일상과 맞게 함으로써 그들의 평등 의식을 반영하고, 문화 자체를 친자연적, 친인간적으로 이끌어 왔던 제주사람들의 집단적 의식, 무의식의 표현이라는 생각된다(김정숙, 2002).

제주에서 땅은 정말 중요한 곳이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자연적 조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이 땅에서 솟아났고, 아이들을 키워낼 곡식은 물론, 바람을 막아주고 담과 집을 지어주는 재료들도 땅에서 나왔다. 들은 농사를 힘들게 했지만 땅을 눌러줘 보습력을 유지시켜 주었다. 곡식, 물, 흙과 돌, 모든 소중한 것들이 땅에서 솟아나오니, 그 중요한 신들도 땅에서 솟아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귀하고 예쁜 애기가 태어났을 때, 제주사람들은 “아이고, 요 아까운 거, 요거, 어디서 솟아나신고!”라 말하며 기뻐한다.

제주에서는 나라를 세우지 않아도, 적을 섬멸하여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 또 꼭 지혜롭지 않아도 신이 될 수 있었다. 신을 표상할 때도 다른 지역의 신들처럼 신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후광을 입히는 일도 없다. 그리스신화처럼 지배, 지혜, 복수, 관능, 질투 등의 개념을 신에게 부여하여 인간의 모든 심성들이 찬양되고, 극적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신과 같은 동일함을 얻으려 했던 경우와도 다르다. 크고 웅장한 형태로 신을 모시고, 조각이나 그림으로 우상화, 신비화한 경우도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든 늘 경외되는 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최고의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지도 않으며 무소불위의, 유일한 최고 신격의 지위체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귀포 중문 도순당의 중개남중이, 성산 은평리당의 맹호부인, 구좌 행원리 남당의 중이대서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한라산을 구경하러 왔다가 좌정지를 정하여 신이



되는 특징적인 경우도 있으며(송성대, 1996: 송성대는 이를 ‘관광신’이라 이름 붙였다), 이 밖에 외래의 신격이 토착화되면서 귀양신이거나, 방문신, 도망쳐 나온 장군이거나 표류신들이 신화에 채색되는 것도(진성기, 1987) 제주의 일상적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3. 비차별, 평등적 속성의 신화

제주신화는 유독 여신들의 출생담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부모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고 있을 때 주인공이 태어났다고 영웅의 일생의 서두를 마련하는 것은 아시아 서사시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도, 메소포타미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에서는 나타나는 바 없고 몽고 및 만주족, 터키족의 서사시 등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이 요소가 범아시아적 보편적 요소라 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고형의 신화소일 가능성이 있다(현용준, 1986).

초공, 이공, 세경, 칠성신화의 서두는 부유한 집안의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을 드리고 자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이 때 태어나는 아이는 대체로 딸아이로 나타난다는 제주신화의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그 과정에서 늦도록 아이를 못 낳아도 시련과 고통 속에 칠거지악으로 쫓겨나지 않으며, 부부는 같이 정성을 다하고, 태어난 아이가 여자 아이라고 바리테기여신처럼 버려버리지 않는다.

딸아이는, 섭섭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쁜 아이로 소중하게 묘사된다. 초공신화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임정국대감 부부는 태어난 딸이 ‘앞이마는 해님이요 뒤통수는 달님이요, 두 어깨에는 셋별이 오송송 박혀진 예쁜 아이’라고 좋아한다. 때는 구시월이라 산줄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이 이름을 ‘저 산 줄이 빨고 이 산 줄이 빨어 왕대월석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맹왕 아기씨’라고, 예뻐하는 마음을 담아 길게 이름을 짓는다.

신앙 대상의 신을 성별로 구분해 볼 때도 여신의 비중이 높고 무속 속에서 여신의 비중과 역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도 제주신화의 특징적 요소다.

현용준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여신의 존재가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데 제주, 한국 본토, 일본 본토는 여신의 역할이 비교적 주요하다고 하고 있다(현용준, 1986). 특히 제주도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제주도에서 2008년과 2009년 2차에 걸쳐 실시한 제주신당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는 예는 약 391개의 신당(신이 머무는 집, 신전이다)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2009, 제주신당조사), 이 당들에 모시고 있는 신들 중

의 약 6~70%를 여신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에다 척박하고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밭농사의 화산회토와 바다밭(바당밭)은 결국 빈부의 격차를 줄여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조와 자립의 개체주의, 근검과 진취적인 생활태도를 갖추게 했다.

척박한 뜰밭에서 이루어진 제주도 밭농사의 주요 노동은 김매기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알맞은 노동이다. 또한 해산물 채취를 위한 수중 잠수도 내한력이나 수중잠수 체재시간이 긴 여성들이 맡아 했다(송성대, 1996). 빈약한 토지생산성과 반농반어의 성격을 가진 마을에서 여성들은 물때를 따라 바다로, 밭으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먹고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들은 여성들과, 아직은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생산에 직접적으로 부지런히 참여했고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자립의 능력을 확보하게 했다. 협소한 면적의 토지는 부의 축적의 여지를 줄였다. 관직에의 기회는 극소수였고 농사나 사냥, 물질의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남성과 여성, 심지어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란 것은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조혜정은 제주를 권력 구조의 면에서 양편 비우세(neither dominant)의 사회라 정의하면서, 세계에 편재한 남성중심의 사회와 비슷하지만, 남성지배적이 아닌 점에서 특이하다고 말했다(조혜정, 1997)<sup>4)</sup>.

이런 점은 신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앞에서 살폈지만 제주신화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송당당신화를 보면 “아들 간데 18, 딸 간데 28, 손자 간데 378”이라 하여 마을의 실촌과 분리 및 확산이 표현되고 있다. 아이들이 크자, 어머니 백주또는 “이제 다 컸으니, 살 자리를 찾아 좌정해라.” 라고 아들, 딸들에게 말한다.

여신 백주또는, 세상의 많은 다른 신들이라면 자신에게만 집중시켰을 권력을 스스로 없이 분권한다. 아들 18, 딸 28, 심지어는 손자 378은 모두 흩어져 각각 마을을 세우고, 마을의 모든 사상을 관장하는 당신(당의 주인인 신)이 된다. 여신이라 해서 차별받지 않으며 어리다고 차별받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들은 수평적-평등 이동을 한다. 남성지배, 장자상속, 장유유서의 기득적 지배질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4. 비판적 실천의 신화

각각의 신화는 인류가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부터 획득한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

4) 조혜정(1997)은 제주의 한 마을을 성별 분업과 사회 조직, 의식 구조, 권력 구조의 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결국은 제주도가 권력구조면에서 양편 비우세(neither dominant)의 사회로 세계에 편재한 대부분의 남성중심 사회와 비슷하기는 하나 남성 지배적이 아닌 사회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했다.

다. 이런 까닭으로 일반적으로 신화는 해당사회의 조건과 맞물리면서 어떤 의도를 가진 금기나 찬양의 모티브를 가지게 되며, 지역마다의 고유성을 획득하게 된다.

제주신화의 '돈육금기'도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맥락이 된다. 제주신화에서 농경신은 여신이며 분향당신인 경우가 많다. 보통 이 여신은 돈육금기를 지키는 맑고 고운 정결한 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주로 임신을 한 해안마을의 여신들이 돼지고기 냄새를 풍긴다거나, 돼지고기를 먹고 온 것이 화가 되어 '땅 가르고 물 갈라'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제주신화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에서 보이는 신의 분포와 신당의 입지는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생산형태를 결정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마을이 설립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다가 생산형태와 문화가 달라지면 마을이 분리되게 되는데, 신화에서는 이를 '결혼한 신들의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분산하는' 화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육식금기를 어겨서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는 제주신화의 이 화소는 마을의 형성에 이어 마을의 분리 및 확산을 말해주며, 산간마을/중산간마을/해안마을, 목축문화/농경문화/해양문화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농경사회로 가는 제주에서 돼지는 소와 마찬가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물이었다. 사람들의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잡초는 '통시'(화장실) 속 돼지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 훌륭한 거름이 되어 제주의 척박한 땅을 살려냈기 때문이다. 돼지는 '통시'의 구조를 통하여, 척박한 땅을 위한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찌꺼기(음식, 인분)를 처리하고 또 최후에는 식용으로까지 이용되었다. 인분과 잡초들은 이 돼지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해 훌륭한 거름이 되어 척박한 땅을 살려냈던 것이다(송성대, 1996).

그러나 해안마을은 달랐다. 어업이 삶에서 서서히 돈을 벌어들여 주면서, 농업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닌 게 되었다. 특히 여성에게 어업의 활동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가면서 농사와 농사를 위한 거름은 해안마을에선 덜 중요해졌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제 돼지는 먹어도 괜찮은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회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엄격한 교리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중산간 옷뜨르지역/농업/양반/보수적 유교문화>와 <해안 알뜨르지역/어업/천민/진취적 해양문화>가 대립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해발고도 200~600m 내에 분포하는 중산간촌의 반농반목민들은 유교를 받아들여 양반임을 내세우며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해촌(갯마을)을 '포촌(浦村=民村)'이라 불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알뜨르 보재기(鮑作人=漁夫)'라 하여 천시하였다. 또한 반농반어민인 포촌 사람들은 문화변동에 둔감한 유교문화지대인 중산간촌 사람들을 '옷뜨르 촌놈'이라

하며 천시하였다(송성대, 1996).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따르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거부해야 하는 구태가 되었는데도 무섭게 지켜지고 있는 관례, 불합리한 습속들에, 제주신화의 주인공들은 저항한다.

해안마을의 여신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러 찾아 나섰고, 임신한 몸이 필요로 하는 철분과 단백질을 섭취한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점은 살림을 분산하게 되는 계기가 사회의 요구와 임신한 한 개인 여성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에도 불합리한 관례와 규제들은 여전히 완강하다는 점, 구태가 된 관례에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 실천이 여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점, 게다가 수다 한번 떨었다고 칠거리악으로 내쫓겨지는 현실에서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분산’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그 옛날 제주신화 속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 5. 다신(多神)의 신화

제주는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불려진다. 이처럼 신이 많고 무속이 성행한 것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한 생활고가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당의 입지는 제주의 자연조건을 고려한 마을의 형성과 배치, 농업과 목축, 어업이 혼재되어 있는 생산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며, 삶과 문화를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

척박한 땅, 토지의 부족, 인구부양력이 낮은 밭농사 생활, 빈번한 자연재해, 섬이라는 조건에서 수확에 대한 불안은 산으로, 밭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했고, 저승길과도 같은 까마득한 바다 속으로 자맥질하게 했다.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과 신당이 생겨났다. 불리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제주사람들은 ‘통시’ 구조를 이용한 거름의 생산과 같은 리싸이클링의 지혜, ‘덕판배’를 만드는 과학성, 억척같은 부지런함과 절약정신과 도전성 그리고 ‘할망바당’ 등이 보여주는 공동체의식과 함께, 신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가는 힘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제주가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 된 것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내느라 빌 일이 많았던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주 옛날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신화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이 다가오는 엄청난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회구하고, 노쇠와 죽음의 공포에 대응하면서 다신의 신앙을 만들어냈다. 그리스신화도 포도가 잘 영글기를, 바다에 나간 남편 무사히 돌아오기를,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고 평안

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신앙체계를 만들었다.

제주 역시도 부양력이 낮은 화산회토의 말농사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큰 다툼 없이 먹고살아갈 수 있기를, 가족 모두 안녕하기를, 의료체계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었던 현실조건에서 고온다습한 기후에 아이들이 피부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기를, 겨우 수확해서 팔리고 있는 곡식을 태풍이 앗아가는 일이 없기를, 집에 재복이 깃들기를,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수 있기를 빌어야 했던 것이다.

## 6. 뱀신화의 성행

제주에서 뱀신은 자연 및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사상을 관장하는 일반신화, 한 마을의 제반사상을 관장하는 당신화, 집안이나 씨족을 수호하는 조상신화에 두루두루 등장한다.

제주에 뱀신앙이 성행한 것 역시 제주의 지역성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코드다. 고양이 숭배가 이집트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듯, 뱀신앙 역시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맥락에 의해 구성된 문화 산물이다.

제주의 뱀신앙은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뱀이 서식하기에 알맞아서 뱀이 많고, 따라서 뱀에 대한 관념도 신앙시 되었다고 하면서, 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신앙시하고 있다고 한다(진성기, 1987; 송성대, 1996). 지역적인 동물분포에 의해 뱀이 많은 조건인데다가 땅 속에 사는 두려움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뱀신앙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척박함이 절약정신(조낭정신)의 필요성을 만들어 내었고, 곡식을 축내는 쥐의 천적인 뱀을, 재복을 가져다주는 가신으로 삼는 것은, 농경문화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집트의 고양이 숭배, 인도의 소 숭배, 건조지역에서의 돼지금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태전략적인 구체성이 신앙에 투영되었다는 것이다(송성대, 1999).

많은 신앙에서 뱀은 생명에 대한 숭배와 창조, 생산, 영원, 초월, 신비의 단어들과 함께 여성과 긴밀하게 관련되고 여신이 지녔던 위력을 상징하는 회상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혜와 조화로움, 부드러움과 차가움, 감성,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는 변덕, 양면성, 예기치 않은 면의 부상이나 새로운 힘 등을 여성성과 관련시키기도 한다(한국여신학자협회, 1992; FORESEEN, 2000).

여기에 제주의 뱀신앙은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것으로써, 집안의 고풍이나 뒤뜰 등 주로 여성들의 전유공간에 모시는 점, 치마를 따라 모계계승으로 분포한다는 점, 여성들의

직접적인 노동 참여와 그녀들에 의한 부의 생산이 크고 사실상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경제, 문화, 생활 현상들이 많았다는 점, 여성들을 중심으로 무속신앙이 성행했다는 점, 잘 모시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온다고 여겨지게 했던 점 등으로 비추어, 제주여성의 위력과 고유한 존재성에 대한 확신과 그것의 의식적 무의식적 강조가 뱀신앙의 성행과 맞물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김정숙, 2002).

### Ⅲ.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

#### 1. 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마을당(‘본향당’) 신앙이 중심을 이루는 제주신화에는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하는 화소들이 많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자칫 공동체의 질서라는 명분 아래 개인, 개체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개체와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의식과 공존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제주신화가 내재하는 가장 중요한 다문화 요소라 생각된다.

송당신화에서 백주또는 남의 집 소를 잡아먹은 남편에게 “소를 잡아먹는 것은 예사로 있는 일이지만 남의 소를 잡아먹는 것은 소도독놈 말도독놈 아닙니까? 살림분산 합시다.”라 얘기한다. 자기 집 소를 잡아먹은 것이라면 그건 예사로 있는 일이겠지만 남의 집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일은 아무리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지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백주또 여신은 자신의 남편이라는 개인적인 관계에 앞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경제정의와 도리를 요구한다. 신뢰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가치들을, 사랑 업적 재산과 같은 개인적 요구에 앞서, 기꺼이 우선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삼무의 섬’으로 불린다. 먹고 남는 것이 없고, 남에게 줄 것도 없이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 형편에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식구끼리 겨우 힘을 합쳐 먹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마을 전체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은 나와 내 아이들까지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 남편일지언정 결코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폈지만, 백주또는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둔 어머니다. 그녀는 아이들

이 크자, “이제 다 컸으니 네 살 자리를 찾아 좌정해라.” 라고 말한다. 결국 이 아들, 딸들은 제주 곳곳으로 뿔어나가 각자 마을을 세우고 본향신이 되어 자신들의 마을을 관장하며 살아간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개성을 보장받으며 “질로 지만씩”(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큼씩) 살아간다.

“질로 지만씩 살아야 허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부모나 형제끼리라도, 지나치게 기대거나 또는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제주사람들의 일상적 표현이다.

‘불턱’은 불질을 마치고 나온 해녀들이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공간이다. 물질을 가장 잘하는 젊은 상군 해녀들은 이 불턱의 가장 따뜻한 곳에서, 우선 불을 췌 수 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모습은 예의 없고 몰인정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제주의 나이든 해녀들은 당연한 마음으로 불턱의 따뜻한 자리를 젊은 상군 해녀에게 내준다.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오래 물질을 한 젊은 해녀들의 차가워진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칫 목숨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라 말하기는 쉽지만 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사회에서, 노인들에 우선해서 젊은 여성들이 따뜻한 불턱에서 불을 췌는 모습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젊은 해녀들은 이 노쇠해진 노인 해녀들이 계속 물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 따뜻한 바다를 ‘할망바당’으로 내준다. 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의 배려를 함께 보여주는 문화의 진수라 아니할 수 없다.

‘안팎거리 가옥구조’ 역시 마찬가지다. 가난한데다 고온다습하고 바람이 강한 제주도의 기후 조건은 가옥의 규모를 적게 해야 할 필요를 주어, 한마당 안에 있으면서도 안채와 바깥채, 외양간이 서로 분리된 다동분립형의 가옥 배치를 하게 했다(송성대, 1996).

부모와 자녀세대들은 한마당 안에 ‘따로’ 살면서도, 동시에 ‘같이’ 살아간다. 부모님은 안거리에 살고 밖거리(바깥채)에는 아들이 산다. 밥도 따로 해먹고 고팡의 열쇠도 각자다. 그러다가 아들의 식구가 늘어나면 안채를 며느리에게 내어 주고, 자신들은 좁은 바깥채로 거처를 옮긴다. 그 때도 역시 밥도 따로 해먹는다. 고팡의 열쇠도 각자다.

이 ‘따로 또 같이’의 생활체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압박감을 줄이고 고부간의 갈등을 줄여 주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는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하며 살면서도, 자립적으로 살아간다. 부모세대는 노인들만 완전히 따로 살아갈 경우 가지게 되는 경제적인 불안, 육체적 걱정, 심리적인 외로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부모 세대는 권위적인 질서를 내세우거나 의무감으로만 무장된 봉양을 사양하는 대신 현실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식들에게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관심을 유도한다. 젊은 자녀 세대 역시 간섭이 최소화되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자식의 도리라

는 지나친 압박감에서 얼마간 놓여날 수 있었다. 이 모두는 ‘자립’하며 ‘같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자립은 필수적이었고 동시에 가난함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게 했다.

내 발을 살리고 늪에서도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협력과 배려가 꼭 있어야 하는 토대 하에서, 공동체에 대한 존중은 필수였다. 따로 따로, 질로 지만씩 살아가면서도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같이 마을제를 지내고, 마을 목장, 마을 바당, 마을 묘지, 할망바당 등을 만들어 힘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나눔과 배려와 상호부조를 실천했다.

같웃이며 애기구덕, 조냥독(곡식을 아껴두었던 항아리), 물부조(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일이 생긴 집에 물 항아리에 물을 받아갔던 부조), 겹부조(집안 식구들에게 모두 부조하는 것)의 문화도 자립과 공존의 결과로 생긴 삶의 경관들이었다. 여성들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그로 인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독립적인 노인들의 삶의 태도들도 이에 다름 아니다.

거상 김만덕이 부자가 되자 잔치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한 것은 ‘옷 달라는 거지에게 옷을 주고, 돈 달라는 거지에게 돈을 주고, 물 달라는 거지에게 물을 주며 거지 잔치를 열었던’ 삼공신화 가문장 여신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커왔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제주의 강한 어머니들은 송당의 백주또 여신에게서 남편이라는 개인적 관계보다 공동체를 기꺼이 우선하는 마음을 내면화시켜왔을 것이다.

제주여성들은 백주또, 가문장아기, 강림의 큰 부인, 자청비 등 제주여신들을 그들 마음 속의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그녀들의 부지런함, 자립심, 독립성, 용감성을 배우고, 공동체를 기꺼이 우선하여 쫓는 자세를 배웠으리라 생각된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주신화와 문화들은 잘 보여준다. 제주신화의 중요한 화소들이 되고 있는 개체의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협력, 공존, 나눔과 배려의 가치들은 의미 있게 배워야 할 다문화의 핵심적 과제다.

## 2.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문화 감수성

어느 신화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과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는 제주신화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따뜻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창의성을 보여 준다. 그 창의성은 개체의 존중, 공존의 지향, 차이에 대한 인정, 정의, 평등, 나눔과 배려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무척 큰 창의성이다.

많은 신화에서 신들의 위계나 신의 직능은 ‘투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



가 많다. 중요한 신의 자리는, 나라를 세우거나 적들을 섬멸하고 나라를 구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진 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주신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선 대단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최고의 권위와 최하의 권위라는 구분이 거의 없다. 제주신화의 화소를 보면 신의 지위나 직능, 위치를 정하는 등의 문제가, 누가 수수께끼를 잘 푸는 지, 누가 모래땅 위에 꽃을 잘 피워내는 지,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 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지 등의 민중적이고 일상적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투쟁과 파괴의 방법, 어느 한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공존의 방법으로 '배제'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좀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다 뿐이지, 경쟁에서 뒤진 신들도 해당 직능에 대비되는, 그렇지만 그것에 거의 준하는 직능을 가지게 된다. 위계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천지왕신화에서는 누가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수수께끼 풀기' '꽃가꾸기' 경쟁을 벌인다. 수수께끼를 잘 풀고 꽃을 잘 가꾼 신이 이승을 다스리고, 수수께끼를 잘 풀지 못하거나 꽃을 시들어가게 하면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삼승할망신화에서도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은 꽃가꾸기 시험을 한다. 송이송이 꽃을 번성시킨 신에게는 아이를 점지하고, 출생시키고, 기르는 삼승할망의 직능을 부여하고, 꽃을 점점 시들어가게 한 신에게는 어찌다 죽은 아이를 보살피는 구삼승할망의 직능을 부여한다.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 둘 모두 중요한 영역과 기능을 맡는다.

미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는 신들의 식성의 차이로 마을의 분리 확산이 표현되고 있는 점도 일상적 삶의 모습과 관련된 제주신화의 화소이다.

이 부분들은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구분 짓는 일, 나라를 구하거나 마을을 세우는 일, 인간의 탄생, 동식물의 창조 등과 같이 거대한 신들의 일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수수께끼를 풀고 꽃을 키워내는 일 활을 쏘는 일과 같이 인간 일상의 소소한 모습과 다름없다는 것을 제주신화에서 보여주는 장면이다. 수수께끼를 풀고 꽃을 키우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영웅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수수께끼를 풀거나, 꽃을 가꾸는 일, 활을 쏘는 것처럼 세상의 중요한 사상(事象)이라는 것들 역시도 강력한 힘, 단호한 과학적 사고, 단선적인 인과, 논리, 객관적 지식의 단호한 지원을 통해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꽃은 정성을 기울인 만큼 거의 잘 자라지만, 지극한 정성과 관심 속에서도 아무 일없이 시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수수께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오히려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화살은 평소 실력대로 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쉽게 잊곤 한다.

제주에서 흔히 쓰는 일상적인 욕들도 제주신화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제주의 어

머니들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정에 어신 정수남이(자칭비신화에 등장하는 남신이다)처럼 생각 없이 살면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낸다. 거울 앞에서 몇만 내는 자녀에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노일저대처럼 뿐(땃)만 내면서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혼낸다. 어머니를 기진맥진하게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에게 “모기 각다귀같이 덤빈다!”며 말끝을 흐린다. “홀그생이 처럼 홀긱거리지 말라.”고 가르쳤고,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쇠(소)잡아먹을 간새(게으름)’라 말한다.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쇠(소)도둑놈의 집안’이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만이(맹감신화에 등장하는, 3000년 동안 산 신이다) 같이 오래 살아둬서…”라며 말끝을 흐린다.<sup>5)</sup>

마을에서는 일정한 날에(신과세제, 마블림제 등) 하루 종일 굿을 한다. 아이들은 당 입구에 모여 공을 차고, 한쪽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마을을 떠나 있던 젊은이들까지 고향으로 잠시 돌아와 마을의 당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위한 기원을 드리고 묵혀둔 애기꽃을 피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

마을에 있는 나무, 큰 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바위가 신이 되었다. 당에 가보면 아직도 싱싱한 사과가 텅굴고 있고, 누가 아파서 다녀갔는지 계란 껍질이 흩어져 있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풍토적 영향으로 특히 연약한 아이들에게 피부병이 많았고, 이때마다 사람들은 당에 가서 계란을 올리고 기원을 했었다. 의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계란처럼 탐스럽고 매끈한 피부가 되도록 빌어보기도 하는 심정으로 신에게 올린 제물이었다. 새해가 열리면 세배를 드리러 신에게 찾아갔고(새해가 되어 세배를 올리는 제의를 신과세제라 한다), 장마 후에는 신의 집에 낀 곰팡이를 불러드리러 찾아갔다(마블림제). 수확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 입히듯 나무를 신의 몸으로 삼아 물색을 걸어 고운 옷을 새로 입혔고, 지전과 소지를 걸어 풍요로운 농사를 빌었다.

다수 일반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중요하게 다루는 일은 얼핏 ‘소수’와 관련된 다문화 교육과 갈등관계에 놓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상이란 누구나 살아내는 것이며, ‘인간 주체의 정체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이 세계의 이주자’(양영자,

5) 제시된 욕은 우선 필자가 올해 96세이신 어머니에게 귀가 아프게 들던 욕이다. ‘사만이’는 어머니가 우리 자식에게 꾸밈처럼 하시던 말이다. 문전신화에 등장하는 노일저대(노일저대의 딸이라고도 한다)는 남의 피나 빨아먹으려 호시탐탐 노리는 악신인데, 그 죄로 몸이 다 나뉘지고 나머지 살과 뼈들도 다 부서져 모기 각다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집단인터뷰와 개별 인터뷰에서도 많은 제주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면접일자는 2015년 7월 17일자). 이외에 신창 마을답사와 인터뷰결과 및 좌경애, 좌창주 해녀와의 심층인터뷰. 마을바당을 마늘씨를 까며 지키고 있었는데, 노일저대, 정수남에 대한 욕을 들려주셨다(면접일자는 2015년 10월 28일자). 와홀 마을답사와 집단인터뷰와 개별 인터뷰 결과: 노인회장은 신화이야기와 신화 속에 나오는 욕들을 많이 알고 계셨다(와홀리사무소 양남규 노인회장과 21명과의 집단인터뷰와 개별 인터뷰결과).

2015)라는 시각에서 볼 때 차별과 소외를 지양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나눔과 배려를 일상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다문화, 다문화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 3. 비차별의 추구

특히 여성성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제주신화에는 대부분의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성지배-여성순종’이라는 익숙한 질서에 대한 위반과 전복의 행위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남녀, 더 나아가 인간 평등의 모습들이 신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추구하고 실천이 ‘신화라는 것이 아주 오래되고 보편적인 것이듯’, 제주라는 사회 집단 내에 오래도록 내재되어온 역사적인 정신성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게 한다. 일정 지역의 신화는 해당 지역 집단의 의식, 무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신화의 지역성에서 살펴보았지만, 송당신화의 백주또는 여신이지만, 제주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여겨지는 신이다. 제주신화에는 많은 여신들이 등장한다. 또 그 역할이나 기능도 매우 중요하게 관념화되고 있다. 일반신화에는 천지왕신화의 총맹부인, 초공신화의 자지명왕 아기씨, 이공신화의 원강암이, 삼공신화의 가문장아기, 삼승할망신화의 삼승할망, 구삼승할망, 차사신화의 과양생이의 처, 강림의 큰부인, 멩감신화의 사만의 처, 세경신화의 자청비, 문전신화의 여산부인, 노일저대구일의 딸, 칠성신화의 아기씨 등 많은 여신이 있다. 당신화에도 일뤼또, 요드레또, 백주또, 서물한집, 객세전부인, 송씨아미 등 많은 여신들이 등장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조상신화에도 구술할망, 광청아기 등이 있고, 삼성신화에는 삼 처자가 있다. 또 설문대여신도 있다.

많은 제주의 여신들은 그리스의 여신들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의 여신들이 보여주는 부차적이고 종속적이며 소극적인 여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천지창조의 참여부터 마을의 형성, 마을의 분리 및 확산, 산육(産育), 농경, 치병, 수복, 자손과 집안의 보호, 마을과 바다의 수호, 원혼에 대한 치원 등 모든 삶의 부문에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존재였으며,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로 표상된다.

한국무가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리데기신화 역시 신화라는 이면 아래에서 ‘영원한 여성성’(혹은 남성성)의 신화를 계속적으로 재구축하거나 혹은 남성 지배를, 신화와 궤를 같이하는 불변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구조를 항구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리데기신화는 우리 사회의 제1의 전통윤리라 할 수 있는 무

조건적인 효를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보여주며,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아 삼년’이라는 여성의 결혼생활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면서, 남성 지배의 ‘역사적인’ 자연스러움과 좋은 순종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심청처럼 효를 중시하고, 춘향이처럼 순정을 귀하게 여기고, 밥주격으로 맞으면서도 형을 공경하는 흥부를 우리 사회의 표준 인간상으로,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질서와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김정숙, 2002).

그리스여신 헤라는 정작 자신의 남편인 제우스에게는 별다른 항변도 못하면서 남편과 사랑에 빠진 상대 여신들에게만 화풀이를 해대는 질투의 화신으로 묘사된다. 삶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고 이야기도 달라져야 하는데, 이들은 과거의 관계, 여전히 딸, 여전히 아내인 관계만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제주신화의 자청비가 구성해내는 관계는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자청비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온갖 고생 끝에 문도령과 어렵게 결혼하지만 자신들의 결혼 때문에 희생당한 여자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문도령을 한 달의 반, 보름 동안 살다오라고 보낸다. 자청비는 결혼과 사랑에 대해 주체적인 관계를 구성해내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건넨다.

가문장아기는 “난 부모님 덕에도 먹고 살지만 내 운명으로도 먹고 산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난다. 그녀는 부모의 생각을 거역하고 그들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행동은 기존의 ‘관례적인 효 관념’에 반하는 것뿐이지 불효는 아니다. 부자가 된 그녀는 거지잔치를 벌여 부모와 함께 세상의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창조적인 효를 실천한다. 가문장 역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내고, ‘효’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는, 엄연히 실재하는 확고부동한 힘을 가지는 현실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수사는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 정작 평등한 사회구조와 제도의 확립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제도의 확립이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이 종국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라면, 상황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비차별적인 의식과 제도를 없애가는 것이 새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제주신화는 말하고 있다.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관계 맺기를 보여주는 제주신화 속의 여신들, 그리고 신화의 여신들과 상호교감을 나누던 제주의 여성들은,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과 담론을 형성해내게 하는 좋은 질료이다.

#### 4. 구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를 제주의 여신들은 파기해버린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구태가 되어버린 ‘돼지고기 금기’를 제주의 여신들은 깨는 것이다. 세경신화를 보면, 사랑에 빠진 자청비는 곧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남성과의 만남의 기회도, 그 남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남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마저도 금지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 부딪힌다. 그녀는 사랑하는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글공부의, 문도령의 세계로 들어간다.

가부장적인 문화는 사랑마저도 이루어낼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안과 밖, 사랑채와 안채, 과거를 보러 가는 시험의 길과 배틀을 짜는 수도의 길은 남성과 여성을 만날 수 없게 했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sex roles)을 분리시켰다. 남성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었고, 여성은 집 안으로 가두었다. 그런 구분은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다. 남성은 사회관계와 현상의 주체였고, 여성들은 거기에서 소외되었다.

사랑에 빠진 자청비는 처음에는, 다만 문도령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 사회의 질서에 저항한다. 동기유발의 장소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서, 굳이 사회내의 거대한 불평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문도령 앞에서, 자신이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청비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장을 하고, 남성의 영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고, 남성만의 것으로 여겨졌던 승리를 성취하고, 생활 속의 평등을 실천하며 문도령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내고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건넨다.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꼬리를 들고 있는 구태에 저항하면서 다른,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조건들을 형성하고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갔던 제주 여신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용기는, 관례처럼 행해지는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이 일구어낼 개인적 권리와 사회발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편, 제주의 뱀신앙은, 딸에서 딸로 즉 치마를 따라가는 모계계승의 형식으로 모셔져 가는 뱀신이라는 점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이 신앙이 각별했던 표선이나 토산, 김녕의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심지어는 마을 어린 학생들이 제주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하숙집을 구할 때조차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뱀이 치마 속을 따라 다닌다 하여 받아들여지기 꺼렸던 것이다.

이는 맥락을 가지고 형성된 세계 각 인종,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 할지라도 지배적인 문화 담론에 의해 차별되고 배제될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문화 담론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할 이유, 바람직한 다문화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 5. 자율적 문화거버넌스

1만 8천의 신이라는 모든 신들을 청하여, 본(本)을 풀면서 두 이레 열나흘 동안 이루어졌다는 제주의 큰굿은 제주신화의 보고다. 큰굿은 제주사람들의 음식을 나누며,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고, 삶의 지혜를 전파하며, 놀고 풀어내고 소통하며,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회구하는 행사였다. 구휼, 나눔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일은 마을의 큰 부자라야 가능했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큰굿에 기대 열나흘 동안은 굶도 보고 떡도 먹으며, 최소한 먹을거리 걱정을 줄일 수 있었다.

이 큰굿에 오롯이 담겨 구술되는 제주신화들을 보면, 중간 중간에 “그때 낸 법으로~”, 와 “그건 그러하자~”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이 “그때 낸 법으로”와 “그건 그러하자”의 부분들은, 글도 없고 언론도 없었던 해당 신화시대에, 큰 일이 닥치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신화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차사신화를 보면, “그때 낸 법으로 저승의 하루는 이승에서는 일 년이 되는 법”이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기제사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매일 상을 받는 셈이다. 세경신화에는 그때 낸 법으로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경황이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때는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이니, 초상이 나서 성복하기 전에는 남자 상주는 통두건을 쓰고 두루마기는 한쪽 어깨에만 걸치는 법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인생 중 가장 바쁠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어긋나 버릴까 정신없이 만나러 달려올 때와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이니, 두 경우의 옷차림을 같이 하라는 것이다.

한편, 세경신화에는 또 자청비가 매밀 씨를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그때 낸 법으로 매밀 씨는 가장 나중에 심는 곡식이 되었다”고 한다. 일이 없어 심심한 할망이 소일거리라도 달라고 자청비를 채근하는 바람에 씨를 하나 주었고 그해 검질(잡초) 씨라, “그때 낸 법으로 잡초를 매는 것도 농사”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이렇게 제주신화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 해학과 유머와 풍자를 나누는 위로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만큼의 소출 밖에 나지 않는 척박한 토양과 쉼 없이 자라는 잡초에 대한 불평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고 위로를 건넨다. 부모의 장례식은 이리이러한 마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과정에 대한 권유이자 조언이었다.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칙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알려 주는 캠페인이었다. 먹을 것이 똑딱 떨어졌을 때 매밀을 심어 아이들의 배고픔을 이겨내라고 가르쳐주는 농업교과서였다. 장례식의 절차와 형식,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 결혼식의 예법, 제사 예법 등 그 어려운 관혼상제에 대

한 절차와 방법들을 알려주는 지침서였다. 새로운 사회를 맞아 이제는 구태가 되어버린 관습에 합리적으로 저항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의 절묘한 방법을 배워주고,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지 알려주는 철학서였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지를 이야기하고 제시했던 담론의 장이었고 세계관과 철학을 제시하는 틀이었으며, 마을사람들 스스로에 의해 구성해낸 자율, 합리적 관리체계, 그렇게 만들어 낸 장기지속의 문화거버넌스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이 글에서 필자는 제주신화의 고유한 지역성을 1) 마을공동체 중심의 신화, 2) 민중적, 일상적인 신화, 3)비차별, 평등적 속성의 신화, 4)비판적 실천의 신화, 5) 다신多神의 신화, 6) 뱀신화의 성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어서 이런 제주신화에 내재된 다문화 요소들을 1) 개체의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 2)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다문화 감수성, 3) 비차별의 추구, 4) 구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5) 자율적 문화거버넌스의 다섯으로 나누고, 개체에 대한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협력, 차이에 대한 인정, 공존, 절약, 나눔과 배려, 비차별, 정의, 비판, 저항, 자율, 위로, 소통, 공감, 연대, 치유 등의 다문화 세부 요소들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주신화의 다문화 요소들이 다문화의 전반에, 다문화교육의 실천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지 몇 가지를 제언하며 글을 끝맺고자 한다.

신화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반영되어 있는 진리인 동시에, 현대인들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인류 전체의 경험에 대한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신화들은 실존의 의미를 찾고자하는 인류의 탐구를 반영하고 있다(질베르 뒤랑, 1996).

세계화와 지방화, 개방화의 진행과 함께 세계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고, 이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적 공존과 상호존중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불리한 제주의 자연환경은 오히려 '미개발의 발전', 즉 '에코 디마크러시', '에코 페미니즘'이라 할 만한, 근대를 뛰어넘는 물질·정신적 가치들을 오래 유지시켜 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주신화에 깃들여져 있는 개체의 존중, 공동체에 대한 신뢰, 다양성의 존중과 평등을 위한 실천,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비판적 사고, 구태에 대한 비판

과 저항, 위로와 소통,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자율적 관리체제와 같은 요소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타자와 다른 지역,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창의적인 지역성의 확립은 다양한 세계 지역과의 공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바탕이 된다.

덧붙여, 신화라는 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산실인 만큼,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 역시 역동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주신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은 교과 영역(국어, 사회, 도덕, 역사, 지리, 체육, 미술, 과학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비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는 좀 더 긴 시간동안 연구하고 실제 답사와 체험활동을 거치며 제주신화 속의 바람직한 가치들을 내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승전결의 온전한 이야기 틀을 가지는 제주신화의 이야기는 현실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토론거리로도 적당하다.

시시때때 기막히게 적합한 표현으로 놀라움을 주는 제주어에 대한 감수성 교육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 곁의 어머니가, 내 이웃들이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재인식과 실천의 강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든 신화든, 그 의미는 현재와의 대화, 현재와의 의미심장한 접목에 있다. 현재와의 의미심장한 접목이란, 긴 강한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담론으로서 기능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성숙함의 공리는 차별과 배제, 규제와 억압이 아닌, 교양 있는 개체의 합리적 선택과 판단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형성될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옛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제주의 신화를 지금, 여기로 불러들여 하는 이유이다. 제주신화에 내재된 이 요소들은 다문화/먼저 온 미래'를 위하여 '오래된 미래/제주신화'가 제시하는 실천의 방안과 시사점을 얻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주지역의 신화를 통해 다문화와 다문화교육을 재고해 본 이 글은 '다문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의 한 방법을 제시해보는 작업의 하나였다. 앞으로 다양한 텍스트-컨텍스트의 연구와 이를 매개로 다문화 담론과 실천을 위한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 문헌

- 고해경(2011).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서울: 한겨레출판사.
- 교육과학기술부(2011).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 권오현 외(2013). 다문화교육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식 외(201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 김응중(1997). 아날학과. 서울: 민음사.
- 김인희(1987). 한국무속사상연구. 서울: 집문당.
-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김정숙(2002).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제주도: 도서출판 각.
- 김천기 외(2013).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도: 교육과학사.
- 김태곤, 최운식, 김진영 편저(1988). 한국의 신화. 서울: 시인사.
- 김혜숙(1999). 제주의 가족과 당. 제주도: 제주대학교 출판부.
- 목산 장보웅박사화갑기념논총 발간위원회 편(1996). 이덕안(1996). 지역과 문화의 공간적 전개. 제주도 신화와 자연환경. 이덕안(편), 95-121.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문무병(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신화 자료집. 제주도: 파피루스.
-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박휴용(2012).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서동욱(2000).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 선정규(1996). 신화로 본 고대 중국인의 사유세계 - 중국신화 연구. 서울: 고려원
- 송성대(1996).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도: 파피루스.
- 송성대(1999). 제주섬의 Regionality와 Regionalism. 지리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송인정(1998). 제주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대한 연구-동촌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양영자(2007).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영자(2015). 한국 다문화교육의 새 지평: 역사적 소수자의 미래지향적 재현. 교육과정 연구, 33(2), 179-205.
- 양영자(2015). 한국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한 재고: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으로

- 부터의 통찰. 다문화교육연구, 8(3), 61-77.
- 염미경(2013).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15(2), 23-47.
- 윤교임(1995). 여성영웅 신화연구-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덕안(2005). 도서지방의 설화에 담긴 지리적 의미 찾기 -제주도, 흑산도, 비금도를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39(4), 501-517.
- 이수자(1996).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성 인식(2). 이화어문논집, 14, 25-48.
- 이윤기(1999). 뫼토스1, 2, 3. 서울: 고려원.
- 이윤기(2000).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서울: 용진닷컴.
- 장영주(2011). 설문대신화에 나타난 교육이념 연구. 교육철학, 43, 223-246.
- 장주근(1995).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 집문당.
- 정광중 외(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서울: 도서출판 보고서.
- 이주여성인권포럼 지음(2013). 우리 모두 조금 낮은 사람들. 경기도: 도서출판 오월의봄.
- 제주도(2000). 돌과 바람의 섬, 신들의 나라 제주. 제주도: 도서출판 각
- 제주문화원(2010). 제주신화집 1. 제주도: 제주문화원.
- 제주전통문화연구소(2000). 신당기행3.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답사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2008, 2009). 제주신당조사2008, 제주신당조사 2009. 제주도: 도서출판 각.
- 조대훈(2015). 글로벌·다문화 한국의 '시민'과 '시민교육' 새로운 쟁점과 과제. 교육과학연구, 17(1), 1-18.
- 조혜정(1997). 한국의 남성과 여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진성기(1987). 남국의 무속. 서울: 형설출판사.
- 한국여성연구소 지음(1999). 새 여성학 강의. 경기도: 도서출판 동녘.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신상연구반 편(1992). 한국 민간신앙에 나타난 여신상에 대한 여성신학적 조명. 서울: 여성신학사.
- 최재천(2011). 통섭의 식탁. 서울: 명진출판사.
- 표정옥(2010).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신화여행. 서울: 대교출판.
- 황패강(2006). 한국신화의 연구. 서울: 새문사.
- 황패강(1996). 일본신화의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 현용준(1986). 제주도 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문고.

- 현용준(200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제주도: 도서출판 각.
- 현승환(1992). 「내 북에 산다」 계 설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Caroline Ramazanoglu(1998). 푸코와 페미니즘 그 갈등과 긴장[*UP AGAINST FOUCAULT Explorations of Some Tensions Between Foucault and Feminism*]. (최영, 박정오, 이희원 옮김).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93에 출간)
- Claude Levi-Strauss(2012). 슬픈 연대[*Tristes tropiques*]. (박옥줄 옮김). 경기도: 한길사. (원전은 1955에 출간)
- FORESEEN(2000). 여성적 가치의 선택[*L'ALTERNATIVE DES VALEURS FEMININES*]. (문신원 옮김).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98에 출간)
- Fran,cois Dosse(1998). 아날학과 신화에 대한 새로운 해부 조각난 역사[*Des Annales a la nouvelle histoire*]. (김복래 옮김).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원전은 1987에 출간)
- Frazer, James George(1997). 황금의 가지[*The Golden Bough*]. (김상일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50에 출간)
- Gilbert Durand(1998). 신화비평과 신화분석[*INTRODUCTION A LA MYTHODOLOGIE*]. (유평근 옮김). 서울: 살림출판사. (원전은 1996에 출간)
- Jean Shinoda Bolen(1996), 우리 속에 있는 남신들[*Gods in Everyman*]. (유승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원전은 1989에 출간)
- Jean Shinoda Bolen(1997),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Goddesses in Everywoman*]. (조주현, 조명덕 옮김).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JOSEPH CAMPBELL(1996). 세계의 영웅신화[*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이윤기 옮김). 서울: 대원사. (원전은 1949에 출간)
- J.F.Bierlein(2000). 살아있는 신화[*LIVING MYTHS*].(배경화 옮김). 서울:종서적
- Lawrence Grossberg · 원용진(1997). 문화연구와 권력. 현대사상. 1997년 겨울 제4호
- Lucian Boia(2000). 상상력의 세계사[*Pour une Histoire L'Imaginaire*]. (김응권 옮김).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98에 출간)
- Nakazawa Shinichi(2003).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JINRUI SAIKO NO TETSUGAKU*]. (김옥희 옮김). 서울: 동아시아. (원전은 2001에 출간)
- Pierre Bourdieu(2000). 남성 지배[*LA DOMINATION MASCULINE*]. (김용숙, 주경미 옮김). 서울: 동문선. (원전은 1998에 출간)
- Robert A, Johnson(2010). 신화로 읽는 여성성 [Understanding Feminine Psychology]. (고혜경 옮김). 서울: 동연. (원전은 1989에 출간)

**\* (마을 답사, 집단 대담 및 인터뷰 기록)**

- 2015. 7. 17. 신창 마을 답사와 인터뷰: 좌경애, 좌창주 해녀 인터뷰. 마을바당을 마늘씨를 까며 지키고 있었는데, 노일저대, 정수남에 대한 욕을 들려주셨다.
- 2015. 10. 28. 와홀 마을 답사와 집단 대담 및 인터뷰: 양남규 노인회장님이 특히 신화이야기와 신화속에 나오는 욕들을 많이 알고 계셨다.(와홀리사무소 양남규 노인회장외 21명)
- 2015 .7. 17. 신창, 두모 마을 답사 및 집단 대담 인터뷰(신창리사무소. 고영우외 21명)
- 2015. 7. 24. 신창, 두모 마을 답사 및 집단 대담 인터뷰(신창리사무소. 홍방부 외 8명)
- 2015 .8. 12. 조천 마을 답사 및 집단 대담 인터뷰(조천리사무소. 김형진 외 8명)
- 2015. 8. 19. 조천 마을 답사 및 집단 대담 인터뷰(조천리사무소 김보홍 외 13명)
- 2015. 11. 10. 고산 마을 답사 및 집단 대담 인터뷰(고산1리사무소. 이성훈 외 17명)

**\* (답사 기록)**

- 2015. 5. 1. 제주시와 서부 지역 신당 답사
- 2015. 7. 24. 제주시 지역 신당 답사
- 2015. 11. 21 서귀포, 중문 지역 신당 답사
- 2015 .7. 5. 안덕 지역 신당 답사
- 2015. 7. 17. 신창, 두모 지역 신당 답사
- 2015. 8. 12. 조천, 함덕 지역 신당 답사
- 2015. 8. 17. 성산, 수산 온평 지역 신당 답사
- 2015.11.10. 고산 지역 신당 답사
- 2016.5.6. 제주시와 동부 지역 신당 답사

〈Abstract〉

## The Multicultural Elements in Jeju Myths

Kim, Jeong-sook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Island is a windy volcanic land, abundant in stones. These harsh natural environments greatly affected the ways of Jeju people's thinking and living, resulting in their own cultural contexts and products, that is, Jeju myth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multicultural elements intrinsic to Jeju myths formed by these Jeju conditions, suggesting their multicultural implications and the effective ways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almost barren land that only allows dry-field crops, its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cing people to go out to the rough sea for their living, and its fragmented farming spaces leading to separate ownership, equality, and individualized living - all these conditions gave Jeju people their own characteristics. Low agricultural productivity necessarily required self-reliance and competition. Everyone in the community - women, men, adults, or children - had to participate in earning a living and this necessity helped to form a culture which respects competition, diversity and individuality. Jeju people also needed cooperation within the community so that they could continue to keep their land productive and do their labor as a productive person throughout their lifetime. Important themes of Jeju cultures or Jeju myths are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trust in the community. Jeju myths show numerous multicultural elements such as cooperation, coexistence, acceptance of differences, nondiscrimination, mutual communication, empathy, fairness, consideration, sharing, tolerance, solidarity, justice, criticism, resistance, autonomy, cure, saving, comfort and etc. Jeju myths still defeats its being ancient and continues to produce new relationships and arguments coping with new social changes.

김정숙

Key words: characteristics of Jeju myths, multicultural element, respect for individuality, trust in the community, acceptance of differences